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김혜영*

〈국문초록〉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한국인의 가족의식과 가족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친밀성이나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함축하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으며, 한부모나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결혼제도 내의 출산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혼인제도 밖의 출산이나 자녀양육은 부정시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혈통에 기반 한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은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성과 가족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로 규정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은 미혼모와 그들 자녀의 존재를 비가시화시켜 왔으며, 그 결과 우리사회는 미혼모에 대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혼모가족의 차별 기제로서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에 주목하고,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와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어떻게 미혼모가족을 타자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배우자 없이 혼전에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가족과 이웃, 학교, 직장으로부터 다양한 배제나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차별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감행함으로써 기성 가족문화의 변화와 균열을 추동하고 미혼모가족의 이중적 특질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어: 미혼모, 차별, 배제, 가족주의, 이중적 성규범

*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khy222@sm.ac.kr

『젠더와문화』 제6권 1호(2013) pp. 7-41

© 2013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산업화와 함께 꾸준히 변화해온 한국가족은 IMF라는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세기 초 가족위기론이나 재구조화 담론이 등장한 바 있지만, 가족변화가 갖는 중층성은 향후에도 가족변동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지하듯,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마주한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가치와 규범보다는 동일한 관심이나 기호에 따라 자유로운 참여와 탈퇴가 가능한 인간관계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친밀성과 섹슈얼리티가 새롭게 정의되면서 결혼 및 가족의 의미나 구성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제도적인 혼인관계가 갖는 상징적, 규범적 의미가 약화되는가 하면, 결혼과 자녀출산을 당연시해온 기성의 가족문화 역시 변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 후 자녀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커플이 증가하면서 우리사회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나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미혼모·부자 가족이나 혼인의 출산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통계청, 2010; 김혜영 외, 2010). 특히 미혼모의 경우 출산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출산 후 입양 선택을 당연시해왔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미혼모 됨을 수용하고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김혜영 외, 2009a). 더욱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차별 및 배제의 경험을 공론화하면서 사회성원으로서는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그들 자녀를 백안시하는 차

1) 2007년 미혼모지원네트워크(<http://www.kumsn.org>)가 개소되고, 2010년 미혼모가족 협회가 설립되는 등의 미혼모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다양한 행동과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별적 문화는 온존해 있는데, 이는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 틀 내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²⁾ 부계 혈통에 기초한 가족주의나 가부장적 성의식이 강한 장년 및 노년세대에게 있어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가족 및 성규범을 위반하는 일탈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혼전에 배우자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미혼모들은 정서·경제적 지지망의 현격한 축소는 물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이나 자퇴 및 사직을 권유받는가 하면 심지어 원가족과의 관계단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혼모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차별기제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부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까지의 연구는 미혼모의 생활실태나 발생 원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1980년대에는 미혼모의 실태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안순덕, 1984), 90년대에는 미혼모 발생 원인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이들의 성의식이나 태도, 자아존중감과 가족 체계에 대한 연구로 그 맥이 이어져왔다(이지은, 1995; 한영주, 1998; 이지연, 2001; 배영미, 2001). 2000년대에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듯, 양육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양육미혼모의 삶과 생활세계에 초점을 맞추거나(이복숙·전영주, 2005; 김혜선·김은아, 2006; 김윤아·이형하·김혜선, 2008; 김유순·김은영, 2008) 미혼모의 입양결정 요인을 탐색하는가 하면(노충래·김원희, 2004; 이명순·박주현, 2008), 십대 혹은 청소년의 출산 및 양육경험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김만지, 2001, 2004; 도미향, 정은미, 2001; 홍순혜 외, 2007; 석창훈 외, 2008; 서정애, 2009; 남미애·홍봉선, 2011)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2) 이런 점에서 사회적 편견이 반영된 '미혼모' 용어에 관한 논의 또한 적지 않다. 이성애적 결혼규범을 전제한 '미혼모'란 용어가 갖는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것의 대안으로 등장한 비혼모, 한부모, 싱글맘, 미스맘 등의 용어는 혼인지위에 따른 이들의 내부적 다양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본 논의에서는 부득불 미혼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는 미혼모의 다양한 특성과 그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미혼모들을 백안시하는 차별기제나 이들의 차별경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차별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가족주의와 남성중심적 성규범에 주목하고,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이 어떻게 미혼모와 이들 가족을 타자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미혼의 출산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산 당사자인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에게조차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는데, 이러한 차별적 태도에는 가족주의와 성차별적 성규범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혼모에 관한 최근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이들이 봉착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별 경험을 살펴보고 있다. 끝으로 미혼모가족이 갖는 가족변동적 함의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미혼모가족은 사회적 승인과정의 부재로 정상가족의 범주로부터 끊임없이 주변화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가족구성을 통해 가족관계의 본질과 의미구현의 과정에 도전하는 역동적 특징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억압구조 속에서도 정형화된 형태를 고집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가족구성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석화된 가족형태와 의미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현대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기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의 본래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개인에 대한 정치(定置)라는 점에서 제도적인 혼인관계가 선행되지 않은 출산은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Wong and Checkland, 1999, 신윤정·이상림·김윤희, 2012:3). 그러나 근대 이후 낭만적 사랑이 개인

유대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와 함께 사랑이 전제된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전통적인 가족지향적 가치관은 산업화를 기점으로 점차 개인의 자아실현이 중시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었고,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랑과 결혼은 경제적인 이유나 의무, 도덕과 같은 규범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의미 부여에 따른 일련의 선택과정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적 욕망 역시 유의미한 감정과 관계를 포출하는 지극히 정당한 방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백·백·게른샤임, 1999: 기든스, 1996: 5).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개인의 가족구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혼전성관계는 물론 자녀출산에 있어 부모의 혼인지위에 따른 차별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되어 왔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북유럽과 자유로운 성문화를 견지한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혼전출산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혼외출산 역시 특별한 낙인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통합 전략을 구사해왔음이 그것이다(장혜경 외, 2006).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가족의 현대성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출산에 관한 한 가족을 통한 정당성 승인의 준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사회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혼외출생율이 50%를 상회하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대비 혼외출생율은 1.5%에 불과한데(OECD, 2011), 이는 무엇보다 법률혼주의의 채택으로 법적인 혼인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인정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듯,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함께 출산율, 혼인율, 이혼율 등의 인구학적 변동이 가속화되어 왔지만, 미혼모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혼여성들은 임신한 그 순간부터 출산과 자녀양육의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 미혼모라는 꼬

리표는 취업에서부터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순정의 가족형태를 이상시하는 가족주의와 남녀의 성적 욕망을 다르게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에 기초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대략 연간 6천 여 명에서 부터 1만 여 건 내외로 추산되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 파악은 가능하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미혼으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을 백안시할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시민적, 모성적 권리가 부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냉대는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낙태에 대한 유혹과 함께 출산 후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혜영, 2008).³⁾ 뿐만 아니라 미혼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원가족의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이유 역시 혼전임신과 출산이 단순한 성규범의 일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정향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가족주의의 준칙 위반이라는 심리적 동조기제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혼모와 이들 가족을 억압하는 차별기제로서 한국의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에 주목하고 있다.

1) 한국의 가족주의

오늘의 가족현실은 과거의 가족이념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은 개인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개인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임희섭, 1996; 박종민·김서용, 2000; 김의철·박영신, 2006). 이처럼 결혼 및 가족가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다수의 가족들은 자녀를 중심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헌신

3) 한국은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연간 34만 건에서 많게는 150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현재 연간 출산아가 5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낙태아의 비중은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 희생을 당연시하고, 우리와 다른 가족형태나 삶의 방식을 배척하는 내 가족중심주의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가족중심주의의 근원에는 바로 한국의 전통적 가치식인 가족주의가 배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주의 개념은 논자마다 조금씩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는 가치의 중심을 개인이 아닌 가족전체에 두면서 가족 내 인간관계를 가족 안팎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화적 특질이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보여준다(최재석, 1982; 신수진, 1999; 이승환, 2004). 예컨대 배광용(1984: 21-22)은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존속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회조직의 형태”로, 손인수(1984: 65)는 “개인보다 가족을 우위에 두고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승환, 2004: 47에서 재인용). 하지만 가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주의가 핵심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족중심주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특질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주의’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중심주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논리가 사회적(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발견된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실제 가족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구성원들을 마치 가족구성원들처럼 간주하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송재룡, 2002: 19-20). 즉 가족을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는 가족중심적 태도에 초점을 두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주의적 의식과 행태가 사회영역으로 연장, 확대되어 나타나는 특질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정상근·송재룡, 2011:97).

이처럼 가족주의는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존속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회조직의 형태라는 점에서 가족구성원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거나 다른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며,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족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족관계가 사회정의에 우선하는 연

고의식이 강화된다는 부정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⁴⁾ 여기에 더해 가족주의는 유교문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세계관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유교적 가족주의는 부계혈연에 기반한 배타적 가족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억압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신수진, 1998: 134; 이영자, 1999). 즉 가족주의가 상정하는 가족중심주의와 사회로까지 확장되는 가족관계의 범주는 부계혈통으로 국한되며, 이때 여성의 역할은 부계혈통자의 생산이라는 도구적 책무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 모계혈통에 기반 한 가족구성의 가능성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고도화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간주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여성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구성이나 아버지로부터의 승인이 배제된 자녀는 원천적으로 정당한 사회성원으로 수용될 수 없는 문화적 장치로 작동되어 왔다. 또한 가족주의는 여성을 가계계승의 수단으로 도구화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성불평등을 구조화시키고, 개인들로 하여금 개인적 권리의 주체자라기보다는 가족적 신분으로 부계가족질서에 순응토록 강제해 왔다(이영자, 1999).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가족주의는 가족 간 경계를 강조하고, 특정한 가족만을 순수한 이념형으로 정제하여 여타의 가족형태나 가족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억압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가족적 신분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이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계를 강조하고 전형적인 가족형태를 이상화함으로써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유도해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 바로 이런 연유에서 가족주의에 관한 많은 논의들은 가족주의가 갖는 병폐에 주목하기도 한다(이승환, 2004; 신수진, 1998; 공미혜, 1992; 조혜정, 2005). 특히 개인을 가족에서 분리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주의는 특정의 이데올로기, 예컨대 유교질서나 가부장제,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를 효과적으로 체제화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혼모가족은 철저히 부정되고 폄하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곧 가족제도 밖에서의 혈연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족의 순수성과 이념성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존재는 가족주의의 허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한국사회의 부계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미혼부나 그들의 가족들은 자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여성에게 쉽게 양도하거나 부모-자녀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부계혈통의 의미를 상대화하고 있다. 즉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될 만한 적실한 물질 토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족주의의 적용과 실행은 쉽게 포기되는 경험적 사례를 구성함으로써 가족주의의 적실성과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한 자녀중심적인 가족문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미혼(부)모가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즉 미혼모(부)의 원가족들은 그들 자녀의 변화된 삶을 수용하여 이들의 (부)모성실천의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출산의 기회를 봉쇄하려는 개입을 시도하게 된다. 원가족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와 관여는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평가에 의해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또한 빅대디(Big Daddy)로서 가족주의를 대변해온 사회 역시 어떠한 책임성을 공유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의 방식으로 이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을 뿐이다.

이에 비해 일부 미혼모들은 홀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면서 가계계승이나 지위재생산과 같은 도구적 관계의 답습보다는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주변화된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점차 가족주의에 의해 도구화되고 화석화된 가족관계를 넘어서려는 일련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가족의 삶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 이중적 성규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주의는 출발부터 여성의 모성적 능력에 기한 한 가족구성 가능성에 배제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성의 권리는 여성의 고유한 재생산 능력보다는 가부장적 공동체 승인에 합당한 부계적통자의 생산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부계의 승인이나 인정 과정이 생략된 출산에 대한 강력한 억제나 차별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고화하는 또 다른 계기로 작동한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 역시 상당부분 변화해 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신자유주의 파고와 함께 확대되는 시장주의의 위력은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친밀성 추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성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정되는 성은 일부일처제에 기반 한 결혼 내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임인숙, 2009). 비록 과거에 비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합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결혼 제도 밖의 욕망추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애정관계가 변화한 남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비혼 남녀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중적 태도를 통해 확인가능하다(김혜영, 2009b).

즉 사랑이 동반된 성적 욕망에 관해서는 허용적이거나, 결혼약속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전가되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비하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여성을 재생산의 주체로 규정해온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적 정결성을 문제 삼는 이중적인 성규범이 작동된 결과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확고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자

녀부양은 남성의 몫이라는 부양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폄하되거나 남성의 승인 과정을 요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기술혁신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가 확산되고, 극심한 물질주의가 조장되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성, 사랑, 결혼관계의 연관적 실체는 용이하지 않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자극적인 성문화와 다양한 방식으로 성거래가 횡행하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은희, 1999). 여기에 더해 가족과 직장이라는 이중 과업의 압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가족 삶이나 여성의 모성 실현을 유예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인화된 삶의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여성들은 가족에 긴박된 삶을 수용하기보다는 그들만의 고유한 친밀성을 추구하거나 임신에서 출산, 출산에서 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모성실행 계기(繼起)들을 분절적으로 선택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이 과거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남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가족 내적 관계로 국한시킬 가능성은 결코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이 더욱 증가하고 혼외출산이나 미혼모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여성들은 그들만의 친밀한 관계 맺기나 성적 욕구를 숨기기보다는 공개적인 표출과 사회적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이중적인 성규범 역시 상당부분 변화할 것이다.

3. 미혼모의 차별경험과 사회적 고립

1)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거리

최근의 가족변화가 한국인의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족주의를 온전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단언하거나 평등개념에 기초하여 다양한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만큼 정합적이고 일관된 것이라고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에서는 여전히 소수자 범주에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예컨대 한부모, 미혼부모, 동성애커플 등은 물론,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화된 사랑이나 성숙한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화된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미혼의 부 또는 모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지 않다.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식은 특정 집단이 소지한 속성이나 가치정향 또는 외재적인 특징을 근거로 사회성원들이 그들 집단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부재 혹은 일정한 거리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기회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물질적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나 주관적 측면에서의 박탈감과 차별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박수미 외, 2004).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혼모는 혼전성관계를 통해 성규범은 물론 유일하게 자녀출산의 합법성을 부여해온 가족규범마저 위반한 일탈자로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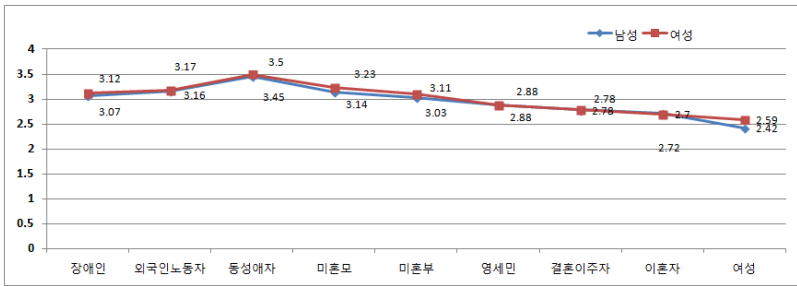
서구에서도 혼전임신이나 미혼의 자녀출산은 문제행동이나 환영받지 못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만큼 강력하거나 차별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하면(김혜영 외, 2009b),⁵⁾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성규범과 가족중심적 사고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여전히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시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 지각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동성에 경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와 미혼부를 2, 3순위로 답함으로써 미혼(부)모에 대한 차별감이 외국인노동자나 장애인보다 높음을 알 수

5) 미혼부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7년 주민등록표상의 광역시도 및 10세 연령대별, 성별 인구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2,000명 표집하여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김혜영 외,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09)를 참조하라.

있다(〈그림 1〉 참조). 그리고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인식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림 1〉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단위: 점)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함(1-4: 전혀 없다-매우 많다)
 자료: 김혜영 외, 2009b: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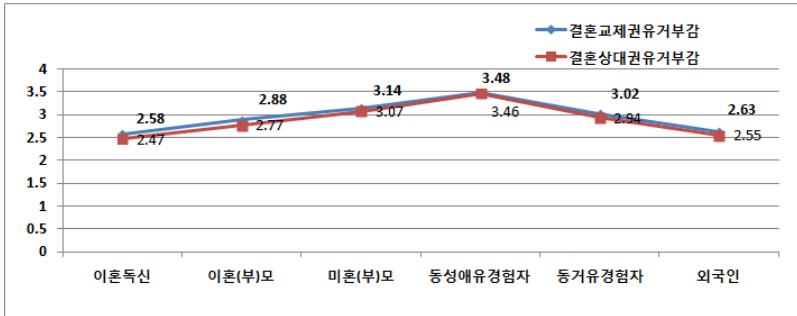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다. 미혼모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미혼모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적인 차별감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응답한 전체 554명의 미혼모 가운데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58.3%(323명), ‘매우 심각한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30.7% (170명)에 달해 전체 89%가 심각한 수준에서 자신들에 대한 차별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a: 112). 뿐만 아니라 2010년 양육미혼모 조사결과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은 관공서, 자녀학교생활, 이웃 및 직장생활 모두에서 차별경험을 토로하고 있었다(김혜영 외, 2010: 118).

이러한 차별감은 미혼모의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일반인들이 가족

6) 그 밖의 특징, 예컨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나 주변인이 교제 혹은 결혼 상대자로서 다양한 유형의 성 및 결혼경험자 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아래의 <그림 2>에서 확인하듯, 다양한 성격형이나 결혼 및 이혼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나 결혼 권유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혼(부)모에 대한 거부감은 동성에 유경험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전력이 있거나 이혼 유자녀인 사람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응답자의 사회인구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미혼(부)모에 대한 차별감은 상당히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다양한 성·결혼 경험자들에 대한 교제 및 결혼 상대자로서의 거부감 (단위: 점)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감이 큼(1~4점)
 자료: 김혜영 외, 2009b: 49-51의 그림을 재구성.

미혼모와 특별한 관계 맺기에 대한 거부감은 곧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된 결과 일반 한국인들이 미혼모에 대해 견지하는 사회적 거리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b: 112). 통상 사회적 거리감은 특

정 집단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나 주관적인 거리감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집단과 어느 선까지의 접촉을 허용할 것인가, 즉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로 측정하게 된다(Bogardus, 1933). 이런 점에서 사회적 거리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의 상이한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것은 객관적, 구조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태도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김상학, 2004).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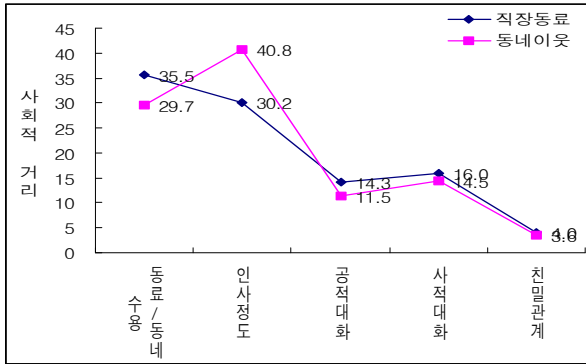
먼저 전체 응답자들이 미혼모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거리감은 김혜영 외(2009b)의 연구에서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와 ‘동네 이웃으로서의 관계’의 두 가지 형태로 측정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대체로 표면적인 관계만을 허용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즉 응답자의 65.7%가 직장동료로서 인사정도만 하는 사이로 지내겠다는 응답을 보였고, 70.5%는 동네이웃으로서 인사정도만 하고 지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비공식적 사적교류나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20.0%와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⁸⁾

7) 기본적으로 Bogardus와 Westie 등의 측정문항을 응용하는 사회적 거리감 척도는 ‘사회적 관계 맺음을 허용하는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하되,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란 공적 관계에서 사적 관계로, 혹은 상대적으로 먼 관계인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부터 가족관계의 허용을 의미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김상학, 2004).

8)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차별의식과 전통적 가족가치관인 가족주의의임이 밝혀지고 있다. 즉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가족주의의 성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b: 86-87).

〈그림 3〉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

(단위: %)



자료: 김혜영 외, 2009b: 51에서 재인용.

2) 미혼모 자녀에 대한 부정과 낙인, 그리고 출구전략으로서의 해외입양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사회성원의 재충원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혼인지위와 무관하게 축복받아야 하고, 이들에게 합당한 성장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부모를 전제하는 가족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조건의 미충족은 고스란히 자녀성장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미혼모 자녀의 경우에는 그들 존재에 대한 부계혈통의 승인 과정이 박탈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장과정의 어려움은 물론 성장 후 취업이나 결혼진입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미혼모들은 자신들을 백안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에 대한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혼모들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 선택을 둘러싼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며, 그 결과 우리사회는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낙태율과 해외입양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문제시하는 사회는 대단히 많다. 하지만 우리만큼 높은 낙태율이나 미혼모 아동의 대다수가 해외로 입양되는 사회는 거의 없다. 이는 정제된 특정형태의 가족만을 이상시하면서 실제로 기능적 과부하에 허덕이는 한국가족의 이중성과 무관하지 않다. 즉 자녀출산을 성, 사랑, 결혼이라는 삼위일체의 산물로 이상화하면서 최적상태에서의 자녀출산과 가족부양 및 돌봄 책임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 도리와 가족의 유지, 영속의 책임을 승계 받아야 한다는 가족주의 유제(遺制)로 인해 다양한 부모 역할이나 가족관계는 적실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가족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비양육 부모역할,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조차 전무한 상황이다.⁹⁾

미혼모에 관한 일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모들은 그들의 임신이나 출산, 심지어 양육결심에 대한 사실을 아기의 아버지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혜영 외(2010)¹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육미혼모의 80% 이상은 미혼부에게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양육(80.0%)보다는 출산 사실을 알린 비율(86.0%)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신 사실 통보 시 미혼부가 보인 부정적 태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김혜영 외(2009a)의 연구에서도 임신 사실 83.7%, 양육 결정은 82.4%가 미혼부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백혜정 외(2012)의 청소년 한부모 연구에서도 69.7%는 아이 아버지에게

9) 북유럽과는 다른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부성담론이나 관련 연구의 상당부분이 비양육부모나 미혼부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10) 2009년 미혼모에 대한 조사는 전국소재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해 있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양육하고 있는 총 5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010년 조사결과는 현재 전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상세한 내용은 김혜영 외(2009a),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과 김혜영 외(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의 자료를 참조하라.

출산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혼부들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은 미혼부의 첫 반응으로는 절반 가량이 아이를 낳거나 결혼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출산 후 자녀양육비를 지원한 경우가 4.5%,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반응 29.9%, 나머지는 구체적인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혜영 외, 2009a: 87-91). 최근 청소년부모 조사결과에서는 약 40% 가량만이 공동양육을 제안하였을 뿐 60% 가량은 책임회피나 입양 등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외, 2012: 118-119). 실제로 2010년 조사에서는 응답 미혼모의 26%가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지급요구 결과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N=30)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임신과 출산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미혼모들이 자신의 미래나 아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줄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미혼부이다. 하지만 임신사실에 대해 절반에 달하는 미혼부가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소식을 감추고 있으며, 자녀출산을 중용한 미혼부조차 출산 후에는 소식을 끊거나 일체의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미혼모들은 원가족이나 사회적 지원 없이는 자녀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 더해 미혼모 자신은 물론 그들의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낙인과 배제를 경험할 것이라는 현실인식은 이들로 하여금 자녀출산이나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미혼 낙태의 상당부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¹¹⁾ 또한 점차 출산 후 양육을 선택

11)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임신에 당면하여 출산보다는 낙태를 선택하는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 백혜정 외, 2012: 34). 이에 비해 최근 발표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조사결과 34.2만 건에 비해 최근에는 24.1만(08), 18.8만(09), 16.9만(10)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는 기혼여성 중절률의 감소폭이 두드러진 것일 뿐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기혼여성 중절률(건/1,000명)은 28.1(08), 20.7(09), 17.1(10)임에 비해 미혼여성 중절률(건/1,000명)은 13.9 (08), 12.7(09), 14.1(10)로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10년 전국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결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1).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입양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외, 2009a).

기실, 한국사회에서 입양은 미혼모 자녀의 주요 보호기제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듯이 최근까지도 연간 3000명 내외의 아동이 입양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양은 1970-90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국내입양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2007년 국내입양우선제가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해외입양이 억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1〉 입양실태의 추이(1958-2011)

년도	입양전체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내입양비율(%)
1958-1960	2,700	168	2,532	6.2
1961-1970	11,481	4,206	7,275	36.6
1971-1975	31,183	9,901	21,282	31.7
1976-1980	42,269	15,304	26,965	36.2
1981-1985	50,502	15,424	35,078	30.5
1986-1990	41,342	11,099	30,243	26.8
1991-1995	16,791	5,817	10,974	34.6
1996-2000	18,634	7,479	11,155	40.1
2001-2005	19,577	8,130	11,447	41.5
2006	3,231	1,332	1,899	41.2
2007	2,652	1,388	1,264	52.3
2008	2,556	1,306	1,250	48.9
2009	2,439	1,314	1,125	46.1
2010	2,475	1,462	1,013	40.9
2011	2,464	1,548	916	37.2
계	250,296	85,878	164,418	34.3

자료: 1958년-1992년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88; 1993년-2000년분은 보건복지부, 2000: 244; 2003년-2011년분은 보건복지부, 2012: 273.

해외입양아동들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자녀로 알려져 있는데, 70년대는 전체 해외입양아동의 36.5%, 80년대 72.2%, 90년대 92.5%, 2001년부터 2004년의 경우 99.9%가 미혼모의 자녀이며, 2005년 역시 해외입양아동의 98.5%가 미혼모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재외동포재단, 2006; Lee, 2007; 이미정, 2009: 44). 이는 곧 산업사회로 진입 이후 미혼모 자녀중심의 해외입양정책이 적극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출범되면서 미혼모 시설중심의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점차 미혼모와 해외입양아의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비합원론이 거세어지면서 최근 들어 미혼모 아동의 해외입양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86-89%가 미혼모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해외 입양아동의 유형

연도	계	성 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남	여	미혼모 아동	기아/빈곤	결혼 가정	비장애	장애
2008	1,250	773	477	1,114	10	126	1,126	124
2009	1,125	722	403	1,005	8	112	1,028	97
2010	1,013	675	338	876	4	133	808	205
2012	755	590	165	696	1	58	398	59

자료: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현황통계, 2009-2012.

그럼에도 정작 우리사회에서 해외입양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무하다. 세계최대 규모의 해외입양아동을 배출해 왔지만, 정작 자녀를 입양 보낸 어머니나 그들 가족, 입양 자녀의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미혼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이들 자녀를 해외입양 보냄으로써 이들의 돌봄 책임을 외면해왔지만, 정작 이들의 삶의 질이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정책적 선택이 최선이었는가에 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¹²⁾ 최근 해외 입양인들의 국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들의 다양한 삶이 국내언론에 알려지고, 무분별한 해외 입양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입법 활동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혼모와 이들 자녀를 포용하는 사회문화와 이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해외입양아동의 지위와 해법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3) 원가족의 단절과 기능적 지지

제도적 혼인관계를 강조해온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성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는 임신과 출산행위의 선택은 미혼여성들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대상은 미혼부나 원가족 관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이 있는 미혼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당하는 현실에서 원가족의 태도는 미혼모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물론 이들의 자립과 자녀양육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기성의 부모세대에게 미혼모들은 자신의 혼전임신과 출산 사실을 고지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출산 전 원가족이 미혼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8%, 출산사실은 83.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고지했다는 응답은 59.7%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집단에서 자신이 직접 원가족에게 고지했다는 응답이 더 높아 7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과정을 숨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욕구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2)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논의는 이미정 외(2009)의 논의를 참조하라.

이에 대한 원가족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은데, 예컨대 출산 전에는 ‘임신 중절을 권유’하는 경우가 38.2%로 가장 많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냉담한 반응이 9.7%, 아기가 아버지나 미혼모 본인이 ‘혼자 양육’하라는 반응은 각각 5.8%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출산 후에는 35%가 ‘입양하라’, ‘알아서 해결하라’는 반응이 20.7%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다수 미혼모의 부모들 역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혼인관계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혜영 외, 2009a: 142-146).

부모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과 현실적인 충고들은 자녀출산 후 자신과 자녀문제로 극심한 정서적 불안감에 처한 미혼모들을 압박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양부모조차 자녀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족의 태도는 일견 대단히 현실적이며 이해 가능한 태도이다. 하지만, 출산자녀를 부정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미혼모 자신의 내면적 낙인과 사회로부터의 표현적 낙인 가운데 무엇이 더 부정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¹³⁾ 따라서 환영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합리적인 대처를 위한 원가족의 지혜와 숙고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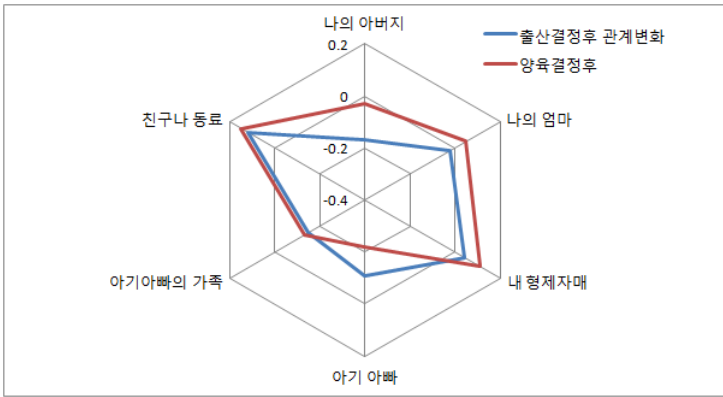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 결정 후 미혼모들은 미혼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악화를 일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양육결정 이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양육이 결정되면 원가족 관계는 다소간 관계회복의 조짐을 보여 주면서 점차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이때 아버지의 태도는 어머니나 형제자매관계에 비해 관계의 악화정도가 두드러지며, 그 회복의 정도 역시 낮게 나타남에 주목할 필요가 있

13) 실제로 입양 보낸 미혼모의 슬픔을 연구한 최승희(2008)의 논의나 김혜영 외(2009a)의 입양미혼모의 반응을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슬프거나’,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등이 부정적 감정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훈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장년세대 남성이 여성들보다는 훨씬 더 가부장적이며 가족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4〉 출산 전·후 주변인과의 관계 변화

(단위: 점)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친밀도가 높게 변화한 것이며 음의 값일 경우 관계가 과거보다 멀어지는 것임(-1~1점)
 자료: 김혜영 외, 2009a: 110-111에서 재구성.

2010년 양육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산 후부터 자녀 양육하는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원가족과 단절된 미혼모의 비중이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 전체 조사대상 양육미혼모들 가운데 부친과 전혀 만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은 25.1%에 달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4명 가운데 한명은 아버지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16.1%가 어떠한 '만남'이 없으며,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15.6%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남이나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완전 단절 상황은 '어머니'의 경우 12.8%이나 '아버지'는 22.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

소식은 물론 일면식도 없이 완전 고립되어 있다는 응답도 9%로 나타났다 (김혜영 외, 2010: 96-98).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이들의 원가족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대단히 복합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부모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미혼모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릴 수 없다는 상황적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의 수용이나 용서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사실이 이웃이나 주변인들에게 알려짐으로써 그들의 원가족조차 일종의 낙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 여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미혼모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원가족과의 관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들이 현재 경험하게 되는 심리·정서적 충격과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에 부모 또는 모가 개입되지 않거나 개입될 수 없는 현실은 이들의 향후 자립과 학교 및 사회생활의 복귀에 긍정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 부모와의 만남 및 연락두절 비율

(단위: 명, %)

구분		부친	모친
만남 부재	합계	518(100.0)	603(100.0)
	전혀 만나지 않는다	130(25.1)	97(16.1)
	만나고 있다	388(74.9)	506(83.9)
연락 두절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144(27.8)	94(15.6)
	연락한다	374(72.2)	509(84.4)
완전 단절(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음)		116(22.4)	77(12.8)

자료: 김혜영 외, 2010: 96-98의 표에서 재구성.

그러나 양친과 완전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의 조력자 역시 원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육미혼모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부모

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할 경우’,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자녀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할 대상으로 ‘부모’를 꼽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위로나 조언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친구’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모의 경우 급전이나 위기상황 등에서 기능적인 도움은 원가족에게 의지하면서도 자신이 당면한 감정적인 부분이나 구체적인 조언은 가족에서 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도구적 가족주의로 인해 가족 간 소통과 친밀성이 낮은 우리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⁴⁾ 한편 응답 미혼모의 20% 내외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미혼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상황별 도움 요청 1순위 대상자 분포

(단위: 명, %)

	집안일에 일손이 필요	갑자기 돈이 필요	자녀에게 위급상황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 필요	어려운 토로 및 조언 구함
계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727(100.0)
부모	221(30.4)	288(39.6)	312(42.9)	61(8.4)	109(15.0)
형제자매	84(11.6)	115(15.8)	78(10.7)	70(9.6)	66(9.1)
친구	72(9.9)	90(12.4)	66(9.1)	365(50.2)	250(34.4)
이웃	45(6.2)	12(1.7)	30(4.1)	37(5.1)	30(4.1)
선생님	23(3.2)	13(1.8)	36(5.0)	25(3.4)	89(12.2)
자녀의 아버지	16(2.2)	25(3.4)	30(4.1)	12(1.7)	4(0.6)
친척	9(1.2)	8(1.1)	12(1.7)	4(0.6)	12(1.7)
조부모	3(0.4)	2(0.3)	3(0.4)	0(0.0)	1(0.1)
직장 동료	3(0.4)	7(1.0)	3(0.4)	13(1.8)	20(2.8)
아무도 없다	251(34.5)	167(23.0)	128(17.6)	140(19.3)	146(20.1)

자료: 김혜영 외, 2010: 96-98의 표에서 재구성.

14) 이에 대해서는 졸고(김혜영, 2009)를 참조하라. 즉 한국가족은 가족부양과 가족단위의 지위제 생산이라는 기능적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친밀성이나 소통이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가족주의 특질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4. 차별과 배제를 넘어: 미혼모 가족의 새로운 도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모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성발현의 생물학적 신호로서 임신과 출산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미혼모를 둘러싼 구조화된 억압은 이들이 경험하는 모성실현의 기회조차 무시할 것을 강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혼모들 가운데 일부는 바로 자신들이 당면한 특수한 상황에서 조차 자녀양육을 의지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미혼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과 함께 미혼모의 특성을 다양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육미혼모들의 대다수가 이미 임신 직후나 출산 전부터 자녀양육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미혼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녀양육결정이 임신 직후나 자녀를 낳기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외, 2009a; 김혜영 외, 2010). 미혼모들의 양육의지는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못지않게 자녀양육 결정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혼모들의 자녀양육 결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에 무엇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는가에 대해 미혼모들의 66.3%가 '자신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고 답하고 있다. 즉 자녀양육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의향'과 '가족', '미혼부의 의견' 순으로 영향요인이 나타났지만, 원가족과 미혼부의 의견에 따르고 있다는 응답은 12.9%, 12.5%에 불과하다. 특히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을 하고 있을수록 자녀양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미혼부 의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10: 37). 이에 비해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

15) 예컨대 2010년 양육미혼모들이 경우에는 '임신사실 직후'부터 양육을 결정했다는 응답비율이 39.8%, 자녀를 낳기 전이라는 응답이 36.5%에 달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36).

로 한 2012년 조사결과에서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51.7%가 자신이 '혼자서'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를 십대와 이십대로 구분할 경우, 십대 청소년 38.8%, 이십대 57.8%로 양육결정과정에서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십대의 경우에는 아이아버지의 영향이 원가족보다 크게 나타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백혜정 외, 2012: 124).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경험 및 일자리의 질은 향후 미혼모 가족을 가시화시키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비록 통념적인 가족을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성실현의 기회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가슴에 주홍글씨를 스스로 부착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만혼과 초저출산 경향은 서구와 같은 개인주의의 귀결이기보다는 이들의 섹슈얼리티 실현을 제약하는 불안한 사회경제적 현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결혼제도에 기반한 출산을 강제하는 사회문화는 한국의 재생산체계를 더욱 더 잠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출산 및 양육을 둘러싼 젠더적, 사회정책적 함의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김혜영, 2013: 7; 장경섭, 2011).

주지하듯, 최근 도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은 가족형성과 유지를 통해 확보되는 가족의 사회적 자본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가족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의 양극화와 전 세대에 걸친 고용불안정성의 증가는 사회적 양극화 논쟁과 함께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바야흐로 가족은 부의 흐름이 아닌 '위험의 흐름'에 의해 규정되는 경향이 농후해졌으며, 부분적으로는 혈연가족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 또한 약화되고 있다(Caldwel, 1982; 장경섭, 2011: 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환경에서는 부계혈통에 근거한 '가

족 전형'을 고수해야할 필요나 당위성은 약화되고, 자녀를 통한 지위재생산으로 가(家)를 계승한다는 가족주의의 적실성은 상당부분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전지구적 경쟁의 맹위에 잠식당한 우리사회에서 가족주의에 의한 사회통치방식은 이미 다양한 도전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양육미혼모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다양한 호기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2010년 양육미혼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4점 척도로 구성된 다음의 진술, 즉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평균 3.67점)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평균 3.37점)에는 높은 동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2.33)과 ‘부자유’(2.11), ‘엄마라는 사실의 부정’(1.56) 등과 같은 부정적 항목에 대한 동의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강한 긍정성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원가족의 단절, 미혼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 포기 욕구를 느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81.8%)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44-47). 또한 청소년 미혼한부모들 역시 부모로서의 효능감에 대한 높은 자기긍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백혜정, 2012: 131).

이처럼 양육미혼모가 보여주는 강한 자기긍정성과 자녀양육의 책임감 및 효능감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과 삶의 양태에 대한 수용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나친 가족중심성이나 최적의 생존단위로서 기능적 가족주의를 강조하고 부계혈통의 폐쇄적 가족 구성방식만을 옹호하는 한국 가족문화의 주요한 변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혼모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미혼모 예방을 위한 일차교육이나 사후개입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은 물론 자녀

양육과정에서 이들이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빈곤화가 그들 자녀세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포괄적 지원정책에는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이들이 ‘비결혼자’로서의 수치심보다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의지적 ‘양육자’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한편견 교육과 다양한 성애와 친밀성에 기초한 가족구성의 권리가 옹호될 수 있는 문화의 기획과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미혜(1992), “가족이기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가족학회, 『가족학논집』, 제4집, 1-20쪽.
- 기든스, 앤소니(1996),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서울: 새물결, Giddens, A.(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rdern societies*, Cambrige: Polity Press.
- 김만지(2001),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8호, 53-65쪽.
- _____(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또래,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2호, 5-25쪽.
- 김상학(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169-206쪽.
- 김유순·김은영(2008),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서울: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윤아·이형하·김혜선(2008), “미혼양육모의 양육체험”,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0권 1호, 1-20쪽.
- 김의철·박영신(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제12권 5호, 1-28쪽.
- 김혜선·김은하(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1호, 373-393쪽.
- 김혜영(2008a),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제9집 2호, 55-94쪽.
- _____(2008b), “미혼모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7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 _____ (2009), “개인화된 사회의 친밀성과 가족”,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고려대출판부, 50-71쪽.
- _____ (2013), “위험사회, 가족의 중층적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사회 창의적 디자인 모색: 화합적 사회를 위한 복지』, 한국사회학회 발표자료집.
- 김혜영 외(2009a), 『미혼부모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9b),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_____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 홍봉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3호, 141-170쪽.
- 노충래 · 김원희(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제17권, 49-79쪽.
- 도미향 · 정은미(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1-11쪽.
- 박수미 외(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종민 · 김서용(2002),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45집 2호, 141-164쪽.
- 배광용(1984),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정신문화연구원.
-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기질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8권 3호, 45-70쪽.
- 백혜정 외(2012), 『청소년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백·백-게른샤임(1999), 『사랑은 지독한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서울: 새물결, Beck, U. and E. Beck-Gernsheim(1990),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Suhrkamp Verlag.
- 보건복지부(2011), 『'10년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서정애(2009),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1호, 281-308쪽.
- 석창훈(2008),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송재룡(1999), “한국가족주의와 준거기준의 이중성을 넘어”, 한국인문사회 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23권 1-2호, 161-182쪽.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근본사상과 정착과정에 관한 문헌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1호, 127-152쪽.
- _____ (1999),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1호, 165-192쪽.
- 신윤정·이상립·김윤희(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명순·박주현(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3호, 187-205쪽.
- 이미정(2009), “국내의 입양과 미혼모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2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 이미정 외(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복숙·전영주(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집』, 제16집, 1-32쪽.
- 이승환(2004), “한국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 가능성”, 한국유

- 교학회, 『유교사상연구』, 제20집, 46-66쪽.
- 이영자(1999),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23집, 107-122쪽.
- 이지은(1995), “우리나라 일부지역 산업장 청소년의 피임지식, 성태도 및 성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1), “시설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인숙(2009), “여성과 결혼제도 밖의 성”, 『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 서울: 고려대출판부, 179-217쪽.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5권 1호, 5-18쪽.
- 장경섭(2011), “‘위협회피’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23집 3호, 1-23쪽.
- 장혜경 외(2006), “주요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제12권, 1-233쪽.
- 재외동포재단(2006), 『국외입양인백서』.
- 정상근·송재룡(2011),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습속’이 시민의 ‘시민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N 시민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35권 4호, 91-118쪽.
- 정은희(1999), “성과 사랑”,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255-279쪽.
- 조혜정(2005),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17집, 81-98쪽.
- 최승희(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사회복지연구』, 제36집, 203-225쪽.
- 최재석(1982), 『현대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통계청(2010), 『혼인통계』.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순혜 · 김혜래 · 이해원 외(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Bogardus, Emory S.(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17(Jan-Feb), pp. 265-271.

Lee, Bong Joo(2007), “Adoption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6, pp. 75-83.

Wong, J. & D. Checkland(1999), *Teen Pregnancy and Parenting: Social and Ethical Issu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OECD(2011), *OECD Family Database*, Paris: OECD,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검색일: 2013.4.19)

(논문투고일: 2013.04.29, 심사확정일: 2013.05.27, 게재확정일: 2013.05.30)

〈Abstracts〉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Kim, Hyeyoung*

This study explores how many difficulties unwed mothers have experienced in terms of the Korean value system, familism and the double standard of sexuality. The exact number of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is unknown: the reason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social norm that legitimizes pregnancy and childbirth only through the legal relation “marriage”. Sexual experience and childbirth by unmarried couples are considered to be a serious matter that brings disgrace especially to women and family. This is because of familism and sexual norms. Single mothers are branded as offenders in the sense that they disobeyed the sexual norms and gave birth outside of the sacred marriage system, which solely provides legitimacy. This condemnation not only intimidates single mothers psychologically, but also makes them feel separated from society. Nevertheless, the number of unwed mothers is currently increasing, and the child rearing ratios of single mothers are growing as well. Especially as unwed-moms who choose to rear children on their own increase, there have appeared signs of change: cracks in the familism and sexual norms.

Key words: unwed mother, familism, double standard of sexuality, prejudice, social exclusion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nd Indust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